

오늘 檢 개혁·유치원 3법 마침표 찍을까

분회의 개최...민생법 처리 후 수사권 조정안 등 상정 방침 한국당 무제한 토론시 다시 대치...총리 인준 표결도 맞물려

9일 열리는 국회 분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경우 민주당은 다시 '쫓겨기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새해부터 다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8일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국당의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 철회를 긍정 평가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할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무제한 토론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길고 긴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됐다"고 말했다.



“협치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원내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다른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수 있느냐가 고심의 가장 큰 이유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느냐는 고민도 나오고 있어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9일 분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돼도 바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표가 진행될 경우 보이지 않는 반대표가 생각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4+1차원의 공조가 느슨해지면 유지돼도 의결정족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분회의 일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에 분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법안 이후에 올라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임시국회의 일정을 10일까지 끊는다

안철수 “바른미래 분열 내 책임”

당원에 새해 메시지...“초심은 그대로”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8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심과 선의로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에서 자신이 정계에 진출할 때의 생각과 각오들을 언급, “그때의 진심과 선의, 그리고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의 부름에 응했던 이유는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꾸어야 우리가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또 1년여간의 해외 체류에

대해 “제 삶과 지난 6년여간의 정치 여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과분한 사랑과 큰 기대를 보내셨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호남 화합과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추진했던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도 제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안 전 의원은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역사의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과정에서 설득이 부족했고 결과는 애초되고 말았다”며 “이 역시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등록

한국당 위성정당 현실화...원내 3당 만드는 방안도 거론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위의 대표자는 이지는 씨다. 창당 준비를 담당한 한국당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 발기인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번지 우성빌딩 3층’이다. 이는 한국당 중앙당사가 있는 건물로, 3층에는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입주해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

회 분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성 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당 의원 30여명을 비례자유한국당에 배치해 원내 3당으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당은 지역구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현재 보수 진영에서 논의 중인 보수통합의 진행 결과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의 쓰임새는 변동될 수도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의 활동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월 6일이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서정성 “사회 약자가 잘 사는 세상 만들 것”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정성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 8일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남갑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정성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구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 장중심 선거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했다. 또 “반드시 남구주민의 선택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뒷받침하고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정책의 내실 있는 강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재 “청소년 도박 대책 마련 시급”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남재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청소년이 도박으로 인하여 재정적 피해를 위협행동이 나 범죄행위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중·고교생 도박 위험집단은 7.9%(약 7,847명)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가장 높았으며, 전



국 평균은 6.4%이다”고 소개했다. 또 “학생들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있어 무엇보다 심각하다”며 “또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위험정보를 제공해 도박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종천 “촛불혁명 실현 정의로운 정치 펼칠 것”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정의당 유종천 광주시장 서구위원장 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촛불 혁명을 실천하는 정치,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정치,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며 경제는



리보다 안전이 우선인 세상이 됐다”며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을 만드는 정의로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정의당 광주시장 사무처장, 노회찬 원내대표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김성진 “광산에 미래신산업 선도기업 유치”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광산에 미래신산업 선도기업들의 유치하고, 대형 프로젝트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반드시 책임져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 일자리와 산업 지형을 바꿀 미래 AI, 공기산업 등의 핵심지역은 광산이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광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광주경쟁력 미래’의 경우 3만 7075명의 취업 유발효과와 5조 775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지역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대 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99번지 토지 : 1749㎡(529.1평) **감정가 1억4천5백만원 최저가 1억4천5백만원**
- 아 파 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 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